

독서는 삶의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

IT도서보다는 경제경영 · 에세이 즐겨
이순신 리더십 주목... '인문학적 정서도 중요'



조성갑 현대정보기술 부사장

<학력>

1981년 성균관대학교 상경대 졸업
1995년 하버드대 비즈니스스쿨 수료
1996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보통신정책과정 졸업
2002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졸업

2005년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통상산업전공 졸업

<경력>

1980년~2001년 한국IBM (본부장, 전문위원, 지사장)
2002년~2005년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원장
2005년~현재 현대정보기술 부사장

대통령 국정자문회의 정보통신분과 자문역

'언어는 의사소통의 매체일 뿐 아니라 권력행사의 수단' 이라고 했다. 권력자가 세상에 내뱉은 말 한 마디가 뉴스를 만들어내고, 그는 뉴스메이커가 된다. 한편 우리는 주위에서 이런 사람과 종종 마주한다. 말을 하지 않아도 의미가 전달되고, 힘이 느껴지는 사람. 조성갑(趙成甲, 53세) 부사장이 그랬다. 기자는 조성갑 부사장을 인터뷰 아닌 다른 일상의 공간에서 수차례 보았다.

그에게 던져진 질문은 공중에서 잠시 부유하다 제자리를 찾는다. 말과 말 사이에 물이 흐르는 느낌이다. 한 마디를 하더라도 신중히 생각해서 말하는 조 부사장이기에 말을 건네는 입장도 상당히 조심스럽다.

국내 IT업계의 기린아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 몽골, 아제르바이잔, 아랍에미레이트(UAE) 등 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후속작업을 마무리하느라 편안하게 잘 시간이 모자랄 정도다. 조성갑 부사장은 1981년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IBM에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그곳에서 22년간 재직하다,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초대원장을 지냈고, 지금은 현대정보기술 영업총괄 부사장을 맡으며 국내 IT업계의 기린아로 불린다.

현대정보기술은 1993년 9월, 현대 계열 전산실의 통합 운영과 공공·금융·일반기업체의 시스템통합(SI) 사업을 주축으로 하는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가경쟁력의 근간인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 설립된 기업이다. 그동안 대형 IT 프로젝트의 성공적 구축과 운영을 통해 국내외에서 기술력과 수행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종합정보서비스 회사로 성장했다.

9월 초에는 167억원 규모의 정통부 우편정보시스템 성능개선 및 DR(재해 복구)센터를 구축하는 컨소시엄에서 LG CNS와 삼성SDS를 제치고 현대정보기술이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대형 IT서비스 업체들이 독식하다시피 한 올해 공공프로젝트에 획기적인 사례이다.

이순신 '리더십 모델'로 삼아

'IT는 기술...재밌게 읽어야 할 분야 아니다'

총괄영업 부사장으로서는 1400여 명의 현대정보기술 임직원과 함께 하는 그가 바쁜 일과의 행간에 결코 빼놓지 않는 것은 책읽기와 강의다. 지난해까지 성균관대, 외국어대 학부와 대학원에서 강의를 했고, 지금은 호서대에 출강하고 있다. 내년에는 인천대에서 강의하기로 예약까지 되어 있다. '한미FTA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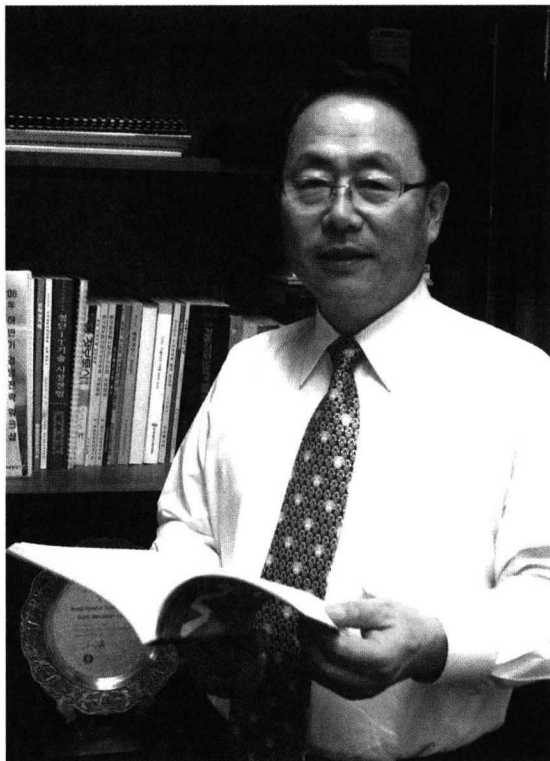
한국 정보통신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조 부사장은 빠름과 느낌의 철학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순신 장군은 경제적인 식견뿐만 아니라 문학적 양식을 고루 갖춘 완벽한 인물”이라고 칭송할 정도로 이순신은 그가 경영자로서 동일시하는 인물이다. 젊었을 적 읽었던 《난중일기》는 경영자가 되기 위한 자양분 역할을 했다. 이순신과 관련된 신간이 나오면 챙겨서 틈틈이 읽어본다. 이순신과 관련된 책들은 그가 경영자이기 전에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친 책이다.

IT업계에 몸담고 있는 그로서는 아무래도 정보통신 관련 서적을 많이 읽을 법 하다. 그러나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선 앞선 트렌드를 미리 알아야 하기 때문에, 책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한다. 어디까지나 전술적 방법론인 IT를 다룬 책은 재밌게 읽을 분야는 아니란 얘기다.

접견실에서 부사장실로 인터뷰 자리를 옮겼다. 부사장실의 서가에는 신간들과 IT관련 자료들이 가득했다. 서가에 꽂혀있는 책을 대충 훑어봤다. 《중국과 WTO》, 《경제발전론》, 《하워드의 유럽IT 재발견》, 《북핵위기의 전망》, 《그림 읽어주는 여자》, 《이기적 유전자》, 《모바일 비즈니스》, 《내 몸이 아프지 않고 잘 사는 법》 등이 눈에 먼저 들어왔다. 업무를 보는 책상 위에서 책이 여러 권 놓여있다. 경제·경영서뿐만 아니라 에세이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골고루 섭렵하는 셈이다. 잠이 날 때마다 수시로 서가의 책을 꺼내 읽는 습관은 변하지 않는 그의 모습 중 하나다. 조 부사장은 하워드 리가 쓴 《유럽IT 재발견》이라는 책을 보여줬다. 유럽 21개국의 IT 실상을 소상하게 집필한 저서라고 소개했다.

“최근 인도의 IT가 부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인도보다 앞설 수 있는 이유는 객체가 아닌 주체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인도의 국민성은 수동적인 반면, 우리 국민성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장점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IT강국으로서 자리매김한 모티프가 됐다는 얘기가.

‘어렸을 적부터 책 읽는 습관 붙여야’

IT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세상이라는 구호와 문구가 수없이 들려오는 시대다. 그도 인터넷 세상을 이끄는 장본인이지만, 학생들을 가르칠 때면 인터넷 세상의 낯설음 같은 것을 느낀다고 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손끝으로 책을 읽어야 ‘읽는 것’ 같잖아요. 책장을 넘기면서 말이지... 요즘 애들은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게 더 익숙하다고 해요. 내가 학생들에게 물어봤지. 모니터 보고 있으면 공부가 더 잘 되냐고, 지금 애들은 온라인상에서 공

부하는게 더 잘된다고 그러더라구.”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은 ‘습관의 차이’라는 것이다. 조 부사장은 “가능하면 청소년들이 먼저 종이책을 읽는 것에 습관을 들여야 한다”며 “특히 고매한 사고나 행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인문학을 풍부하게 접해야 한다”고 인문학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르쳐주지 않는 ‘기본’은 책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키가 크다고 좋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 없듯이, 온라인과 오프라인도 좋고 나쁨을 이분화해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예요. 세상은 점차 온라인으로 가니까 우리 구세대가 용서를 해야지요...(웃음)”

그는 요즘 젊은이들의 행태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면서도 “세상이 온라인으로 변한다고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한다. IT분야의 최고점에 위치한 그에게서 나온 말하기에 더 신뢰가 간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삶의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향후 비즈니스의 성공은 전통과 신기술의 조화로운 융합에 있다고 봐요. 책을 읽는 기술도, 책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죠.” ■

취재_정윤희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